비거리 아이언의 신세계를 연 UD+2, 새 아이콘으로

비거리 아이언 시장을 독주한 1년

평생 한 번은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중 골퍼라면 '평생 한 번은 쳐봐야 할 아이언'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야마하골프의 '인프레스 UD+2(이하 UD+2)'이다.

UD+2는 '울트라 디스턴스(Ultra Distance)'의 약자에 '두 클럽 더 나간다'는 +2를 붙여 거리의 증가를 원하는 골퍼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제품명에 부여한 의미처럼 두 클럽 더 나간다는 확실한 장점을 살리면서 똑바로 나가야 한다는 고객의 요구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점이 눈에 띈다.

그 기술 중 하나가 얇은 페이스와 '스피드-립 페이스(Speed-Rib Face)'이다. UD+2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페이스가 1.9mm, 솔이 1.5mm이다. 페이스와 솔이 모두 얇기 때문에 실제로 볼이 맞는 부분이 함께 휘면서 볼 스피드가 올라간다. 여기에 페이스 뒤쪽으로 0.3mm의 립을 덧대어 볼의 발사각을 높였다. 이것이 7번 아이언으로 5번 아이언의 비거리를 내면서도 탄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비결이다.

두 클럽 더 나간다고?

처음 UD+2가 출시되고 두 클럽 더 나가는 클럽을 표방할 때 그것은 허무맹랑한 과장 광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았다.

골프 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한 클럽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두 클럽이 더 나간다고 홍보할 수 있느냐며 볼멘소리와 더불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클럽 차이가 대략 10야드(약 9m) 정도라고 할 때 두 클럽 차이라면 20야드이다. 평소 7번 아이언으로 140m를 보내는 골퍼가 UD+2 7번 아이언으로는 155~160m 정도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실험으로도 증명됐다. 스포츠산업기술센터(KIGOS)에서 시행한 클럽 성능 테스트에서 거리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P사와 H사 그리고 M사의 7번 아이언과 UD+2(7번)의 로봇 비거리 테스트 결과, UD+2가 타사 제품에 비해 10m 이상의 압도적 거리 차이를 보이면서 153m를 기록했다. 골프에서 10m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거리는 물론 탄도도 높게 형성되면서 원하는 지점에 확실히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김미현 등 여성 프로도 관심 보여

올해부터 UD+2 아이언(남성용)을 사용하기 시작한 여자 골프의 레전드 김미현은 "역시 골프는 쉽게 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즐겁기 위해 하는 골프로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미현은 "요즘 거리가 줄어 플레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UD+2 아이언을 쳐보고 깜짝 놀랐다. UD+2는 골프가 어렵다고 멀리하던 골퍼에게 꼭 필요한 클럽이다. 다시 골프의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2승을 거둔 변현민 역시 "2019년부터 꾸준히 활용하고 있는 아이언이 야마하 UD+2"라고 밝혔다. 변현민은 "처음에는 아이언 비거리가 너무 늘어나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강력한 비거리와 정확도를 동시에 챙긴 UD+2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UD+2와 인연으로 골프를 사랑하게 된 유명 인사들

야마하골프의 클럽 개발자는 "UD+2는 시니어 골퍼를 위한 골프 클럽이 아니다. 볼을 똑바로 멀리 보내고 싶은 골퍼라면 꼭 사용해보길 바란다"면서 "플레이에 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플레이로 골프가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발자의 말처럼 똑바로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은 유명인들도 매한가지였다. 그들은 UD+2를 만난 후 골프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됐다며 입을 모은다.

베스트셀러 소설 〈인간시장〉의 저자 김홍신 작가는 "평소 골프 연습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UD+2 9번 아이언으로 140~145m를 똑바로 보내니 주위에선 당연히 놀랄 수밖에"라면서 "클럽을 잡으면 손안에 딱 들어와 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들고 공이 클럽에 잘 묻어나가는 기분이다. 거리와 방향성이 아주 뛰어난 클럽이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더욱 기분 좋은 것은 내 클럽을 누군가 알아봐주는 것이다. 연륜 있는 캐디가 옆에서 '본래 좋은 채예요'라고 부연하면 나도 모를 뿌듯함에 더욱 흥이 오른다"고 덧붙였다.

요즘 전국 맛집을 찾아다니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허영만 화백 역시 UD+2를 사용 중이다. 그는 가끔 맛집 옆에 붙어있는 골프장을 찾아 라운드를 즐기곤 한다. 그만의 달콤한 여유를 즐기는 방법이다. 허 화백은 "UD+2 클럽의 타구감이 워낙 부드러우니 과연 원하는 거리만큼 날아갈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기존 사용하던 7번 아이언은 130m로 계산했다. UD+2는 제대로 맞을 때 150m가 너끈히 날아간다. 그래서 요즘 140m로 넉넉하게 계산하고 플레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1년간 골프는 내 평생의 동반자였다. 앞으로도 야마하 클럽으로 쭉 함께할 것이다"고 골프 사랑을 숨기지 않고 한껏 드러냈다.

골프 컬럼니스트이자 현(現)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은 UD+2를 "가성비 좋은 정직한 채"라고 표현했다. 윤 회장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디자인이다. 특히 아이언의 거리와 방향성은 아주 만족스럽다"고 했다.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면 그는 설명 없이 바로 쳐보라고 권한다. 라운드를 나가면 모두 UD+2 클럽을 들고 있으니 캐디가 야마하골프 직원들이냐고 물어보는 일도 있었다고. 윤 회장은 "개인적으로 대만족"이라며 한마디로 정리했다.

여성용 제품 연구팀 별도 운영

UD+2는 여성 골퍼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준다. UD+2가 여성 골퍼에게 입소문을 탄 지는 꽤 오래다. 가볍지만 멀리 나가는 장점 외에도 볼을 쉽게 띄우는 건 기본. 여기에 여성 전용 웨지로 높은 그린 적중률과 쉬운 벙커 탈출을 선보이기 때문이다.

일본 야마하골프 본사에는 여성용 제품만 연구하는 팀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 팀을 이끄는 A씨는 한국 출장 때마다 항상 골프 연습장을 방문한다. "일본도 여성 골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한국 시장은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A씨의 말이다. "처음에는 평일 낮에 이렇게 많은 여성 골퍼가 연습장에 있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패션 센스에 놀랐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골프에 대한 진지한 태도다."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여성 골프 시장을 위해 UD+2 여성 클럽은 단순히 '예쁘다'는 것만 소구점으로 잡지 않았다. 남성용 UD+2와 똑같은 기술을 적용해 예쁨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한편, 야마하골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UD+2 여성 클럽 중 아이언 풀세트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유틸리티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아나운서 홍재경, "저, 싱글 골퍼 됐어요!"

아나운서 홍재경은 6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골프계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2015년부터 〈SBS골프아카데미〉의 진행을 맡으며 많은 골프 팬을 확보한 그는 올해 싱글 골퍼 대열에 합류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홍재경은 2014년 SBS스포츠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5년부터 SBS골프에서 〈골프투데이〉 골프 뉴스 앵커와 〈생방송SBS골프아카데미〉 MC 등을 하며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잡았다.

그러던 홍 아나운서가 올해 전격 '프리랜서'를 선언했다. 그러자 그동안 그에게 눈독을 들이던 여러 업체가 러브콜을 보냈다. 그중 야마하 클럽의 공식 에이전시인 오리엔트골프가 그를 야마하골프 앰배서더로 낙점했다.

홍재경은 올해 초 야마하골프의 UD+2 여성 클럽으로 바꾼 후 4월경 레이크우드컨트리클럽 레이크(물길 & 꽃길) 코스에서 79타를 기록하며 첫 싱글을 기록했다. 홍 아나운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것에 도전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야마하 클럽으로 바꾸고 꿈에 그리던 싱글 골퍼가 됐어요"라고 말했다.

홍 아나운서는 "전반 9홀에 보기 4개로 4오버파를 기록했고 10번 홀에 더블 보기를 범하며 불안하게 후반 9홀을 출발했어요. 하지만 남은 홀에서 큰 실수를 범하지 않고 턱걸이로 겨우 7자를 그렸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클럽을 바꾼 후 적응하기 위해 연습도 많이 했지만 일단 드라이브 샷 거리가 많이 늘었어요"라고 싱글 핸디캐퍼가 된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5월, 비전힐스컨트리클럽(동 & 서 코스)에서 다시 한 번 79타(전반 40타, 후반 39타)를 기록하며 첫 싱글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여세를 몰아 6월에는 레이크우드컨트리클럽 우드(숲길 & 산길) 코스에서 1타를 더 줄인 78타를 적어내며 생애 베스트 스코어를 작성했다.

그는 "어머니는 자주 가는 코스에서 어쩌다 싱글한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곤 하십니다. 앞으로는 다른 골프장에서도 7자를 그려보려고요"라고 웃으며 말했다.